

뉴스 라운드업

- 미 재무부, 10~20 년물 국채 바이백 회당 규모 20 억→40 억달러로 2 배 확대 발표, 19 년래 최고치였던 30 년물 금리 급반락
- 미국채 10 년물 -6.7bp·달러인덱스 -0.85%(98.80) 하락 속 금 현물 4.35% 급등해 온스당 4,521.87 달러로 6 월 초 이후 최고
- 전일 코스피 -5.80%·닛케이 -3.16%·CSI300 -2.90% 급락은 재무부 발표 이전 마감분으로 장기금리 급등과 UAE-이란 금융단교 發 중동 리스크 반영, 간밤 안도는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
- 미 국가부채 사상 첫 40 조달러 돌파 속 미 하이일드 크레딧 스프레드 275bp 로 확대 지속, 미·캐나다는 자동차 관세 25%→15% 인하로 무역협상 타결 임박

미 재무부의 깜짝 바이백 확대가 급등하던 장기금리를 진정시켰지만, 그보다 먼저 마감한 아시아 증시의 급락은 아직 그 안도를 반영하지 못했다

미 재무부가 19 일(현지시간) 10~20 년물 등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 억달러에서 40 억달러로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전날 19 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30 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되돌림했다. 이 여파로 미국채 10 년물은 6.7bp 하락한 4.641%, 2 년물은 1.5bp 내린 4.162%로 마감했고, 달러인덱스는 0.85% 밀린 98.80 을 기록했다. 안전자산 수요와 달러 약세가 겹치며 금 현물은 4.35% 급등해 온스당 4,521.87 달러로 6 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되찾았다. 다만 같은 날 공개된 7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히려 깊어졌음을 보여줬고, 다수 위원이 물가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기금선물 시장이 9 월 회의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을 0%로,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인상 확률을 높여가는 경로로 가격에 반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채권시장 안정은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보다는 재무부의 기술적 수급 개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반면 전일 낮에 마감한 아시아 증시는 이 재무부 발표보다 시간상 앞서 급락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5.80% 급락했고 닛케이 225(-3.16%), CSI300(-2.90%)도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전날까지 이어진 장기금리 급등과 UAE 가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이란 금융·경제 거래를 잠정 중단하며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흥국 증시 전반도 미·이란 긴장 완화 움직임이 교착 상태에 놓이며 낙폭을 키웠던 만큼, 밤사이 재무부 발표에 따른 안도 랠리가 아시아 시장에 실제로 반영될지는 오늘 개장 이후에나 확인 가능하다. 한편 미 하이일드 크레딧 스프레드는 275bp 로 최근 확대 흐름을 이어가, 국채·달러·금 시장의 표면적 안도와 달리 신용시장에서는 위험 신호가 함께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둘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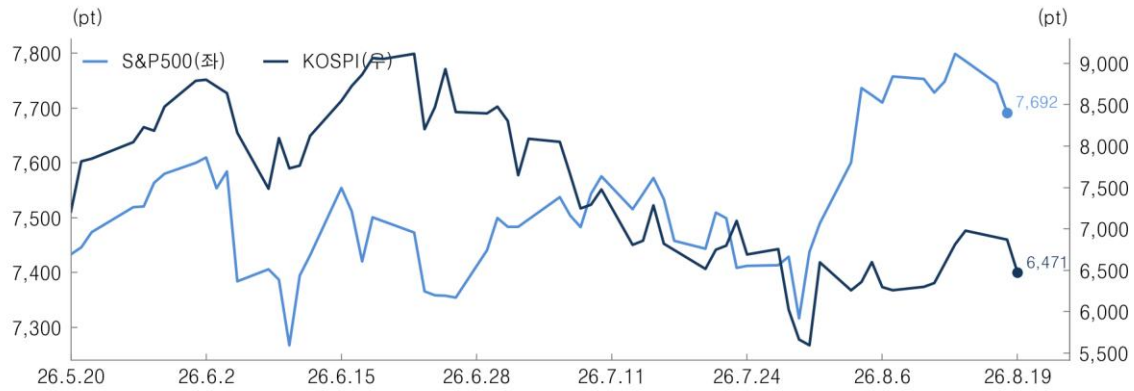
재정 측면에서는 미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 조달러를 넘어서며 트럼프 2 기 임기 중 11.6 조달러, 바이든 정부 4 년간 8.4 조달러가 각각 늘어난 누적치가 재확인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금리가 낮아지길 바란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공개된 의사록의 매파적 기류와 시장이 가격에 반영 중인 인상 우세 경로는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무역 쪽에서는 캐나다와의 협상이 진전을 보여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2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토요일 자정 발표 예정이던 대캐나다 관세는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최종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채권시장의 국지적 안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급락과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같은 날 함께 확인된 만큼, 위험자산 전반의 균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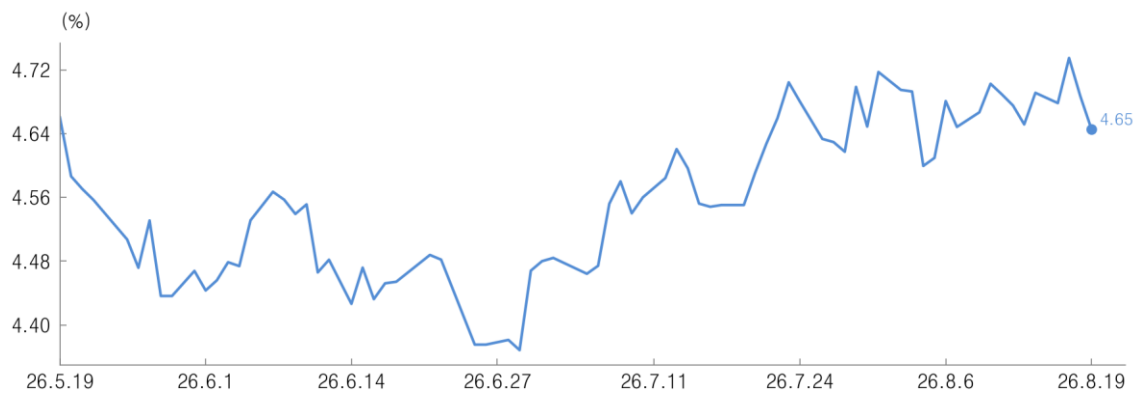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07.98	+0.21%	8/19 종가
	나스닥	26,331.08	+0.16%	8/19 종가
	STOXX 600	651.17	-0.11%	8/19 종가
	닛케이 225	65,326.20	-3.16%	8/19 종가
	CSI 300	4,588.70	-2.90%	8/19 종가
	KOSPI	6,471.17	-5.80%	8/19 종가
	항생	25,495.07	+0.09%	8/19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8.80	-0.85%	8/19 종가
	달러/엔	158.10	-0.03%	8/20 종가
	유로/달러	1.17	-0.01%	8/20 종가
	달러/원	1,386.42	-1.84%	8/19 종가
	달러/위안	6.73	-0.19%	8/19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641%	-6.7bp	8/19 종가
	미국 2 년	4.162%	-1.5bp	8/19 종가
	일본 10 년	2.897%	-5.5bp	8/19 종가
	독일 10 년	3.259%	-0.1bp	8/19 종가
	한국 10 년	4.413%	+3.8bp	8/19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5bp	+5.0bp	8/18 종가
원자재	WTI	84.39	+0.39%	8/19 종가
	금	4,521.87	+4.35%	8/19 종가
	구리	6.50	+0.05%	8/19 종가
변동성	VIX	14.88	-6.12%	8/19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7 건 HIGH	• 미국 재무부 장기채 유동성 지원 2 배 확대, 글로벌 채권 수익률 급락 ↳ 10 년·20 년물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 \$20 억에서 최소 \$40 억으로 2 배 확대 ↳ 장기 수익률 최대 10bp 후퇴하며 수십 년 만의 고점 이탈 ↳ 달러화지수(DXY) 0.71~0.75% 하락 → 98.90 수준, 금현물 3.42% 상승 • Fed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고착 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 ↳ 다수 위원: 인플레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금리 유지·인상 필요 평가 ↳ 일부: 현 금융조건이 2% 목표 달성에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고 우려 ↳ 소수: 이번 회의 인상이 향후 추가 인상 필요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 • 유럽 국채 수익률 신고점, 국채 발행 확대 우려로 글로벌 매도세 심화 ↳ 유럽 정부채권 수익률 수년 만의 고점 경신, 국채 발행 확대 우려 확산 ↳ 글로벌 채권 광범위 매도로 유럽 주식지수(STOXX) 혼조, 아시아 반도체주 약세 연쇄 • 캐나다 달러 2.5 개월 고점 기록, 관세 유예 영향 ↳ 캐나다 달러 1.3823 CAD/USD(= 72.34 US 센트)로 6 월 2 일 이후 최고 가치 ↳ 트럼프 대통령 어제 저녁 캐나다 상품 50% 관세를 자정 시행에서 3 일 유예 발표, 양국 협상 진전 시사 • 유가 4 일 연속 상승, 중동 분쟁 장기화 시사 ↳ 중동 분쟁 조기 해결 가능성 악화로 공급 부족 우려 지속 • 이스라엘 모사드 수장, 시리아 외무장관과 터키 군 배치 협의 ↳ 8 월 14 일 양측 전화 통화에서 터키의 시리아 내 군사 주둔 현황 논의 ↳ 4 일 후 이스라엘이 Abu al-Duhur 공군기지 공격, 미국 3 국 간 분쟁 회피 메커니즘 구축 추진 중
미국 뉴스 64 건 HIGH	• 미국 국채 40 조 달러 돌파, 수익률 급락으로 재정위기 심화 ↳ 전체 국채 규모 사상 첫 40 조 달러 추월 — 트럼프 두 임기 11.6 조 달러, 바이든 4 년 8.4 조 달러 증가 ↳ 30 년물 국채 수익률 5.337%(19 년 최고)에서 약 10bp 하락해 5.187%로 안착, 글로벌 채권 매도세 일시 완화 ↳ 베센트 재무부장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2B(20 억)에서 최소 \$4B(40 억)로 2 배 확대 발표(9 월 9 일~11 월 4 일 시행, 분기당 최소 140 억 추가) — 국채시장 유동성 부족 신호이자 재정 지속성에 대한 구조적 우려 반영 • 달러화 약세 가속, 유로·파운드 2.5 개월 최고 수준 돌파 ↳ 재무부 국채 매입 규모 확대 발표 후 달러 지지부진 — 유로 0.78% 상승해 \$1.1664(2.5 개월 최고), 파운드 0.48% 상승해 \$1.359 ↳ 저금리 통화 선호 심화로 달러 지수가 근 수개월 저점 근처로 약화 • 미-캐나다 무역협상 토요일 자정 기한, 자동차 관세 수준 미합의 ↳ 협상 중 합의안 소식: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인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절반인 25%로 감축하되 일부 쿼터 적용

권역	요약
	↳ 자동차 관세 수준이 여전히 주요 난제, 토요일 오전 12:01 (미 동부시간)이 최종 기한 ↳ 협상 실패 시 자동차 부문 약 200 억 달러 규모에 50% 관세 부과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밤 3 일간 관세 인상을 연기하며 협상 여지 제공 • 신흥시장 주식 1.8% 하락, 중동 분쟁 교착과 연준 인플레이션 우려 가중 ↳ 미국-이란 갈등 해결 노력 교착으로 석유 공급 우려 확대, MSCI 신흥시장 지수 1.8% 하락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7 월 의사록 공개, 정책입안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확인 — 경제 호조와 고금리 지속 기대가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신흥시장 통화는 0.2% 상승(달러 약세 수혜)하면서 주식과 통화의 방향 불일치 — 위험자산 회피 심화 • 라틴아메리카 자산 이번 달 최고 일간상승, 달러 약세 수혜 ↳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가 이번 달 최고 일간상승률 기록 — 달러 0.8% 약세와 30 년물 국채 수익률 약 10bp 하락의 직접적 영향 • 트럼프 금리 인하 희망 표현, Walmart 실적이 소비자 건강도 판단 핵심 ↳ 트럼프 대통령 '나라 경제 성공에 따라 금리는 내려가야 하는데 성공으로 인해 올라가서는 안 된다' 언급 — 연준의 금리 유지 기조와 불일치 ↳ 윈스롭 캐피탈 CIO 가 혼조 소매 시장(TJ Maxx·Target 실적 부진) 속에서 Walmart 실적을 미국 소비자 동향 판단의 핵심 테스트로 지목 • 트럼프 연내 북한 지도자 회담 계획, 한미 연합훈련 단축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 계획 공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를 57 개로 명시 ↳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 단축을 지시 — 북한에 우호적 신호 전달 의도
유럽 뉴스 9 건 HIGH	• 유로존 정부채 매도 지속, 수익률이 거의 20 년 만의 고점으로 상승 ↳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가부채 부담으로 국채 시장에 지속적 압박 ↳ 유가 상승(브렌트유 배럴당 \$92 근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중앙은행 금리 인상 베팅 확대 ↳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협상 없음' 발언으로 지정학적 우려 추가 • 미 재무부 유동성 지원 2 배 확대 발표 후 글로벌 채권 수익률 다소 반등 ↳ 독일 10 년물: 15 년 만의 고점인 3.275%에서 3.258%로, 프랑스 10 년물: 2008 년 이후 최고치인 4.13%에서 소폭 하락, 이탈리아 10 년물: 3 월 이후 최고치인 4.1%에서 소폭 하락 ↳ 영국 30 년물 gilt 5bp 하락한 5.78%, 10 년물 3bp 하락한 5.04%(8 월 4 일 이후 최대 일일 낙폭) • 영국 에너지 가격 상한선 10 월에 약 4% 인상, 3 년 만의 고점 도달 예상 ↳ 이란 전쟁으로 도매 에너지 비용 급증하면서 신임 총리 Andy Burnham 의 전기요금 세금감면(5%)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 ↳ 7 월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영국 인플레이션 4 개월 만의 고점 기록 • 독일 차입비용 15 년 만의 고점 도달,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국방 지출 확대가 주요 배경 ↳ 독일 10 년물, 30 년물 수익률 모두 15 년 만의 고점 기록 ↳ 독일 재무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국방 지출 필수' 강조, 미국·일본도 수십년 만의 고점 기록

권역	요약
	• 유럽 기업 실적 개선 9 주 연속, STOXX 600 집계 수익 전망 24.1% 상향 ↳ 보고 완료 282 개 기업 중 59.9%가 실적 예상 상회 ↳ 에너지 기업이 +138.6% 성장률로 여전히 선도하되, 비에너지 부문으로 회복 확산 • 노드스트림 폭발(2022) 두 번째 우크라이나 용의자 크로아티아에서 체포, 독일 송환 예정 ↳ Vladimir Z. 크로아티아 Pula 시에서 현지 경찰 체포, 해저 폭발물 설치 혐의 • 아일랜드 6 월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 5.6%(29 개월 최저), 점진적 완화 지속 ↳ 2024 년 8 월 정점 10.1%에서 이어진 약세 추세 지속
인도 뉴스 32 건 HIGH	• 인도 중앙은행 '금리인상 신호, 추가 인하 여지는 한계' ↳ 어제 공개된 8 월 금리결정위원회(MPC) 의사록에 향후 인상 가능성 수록 ↳ 정책금리 5.25% 현 수준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 한계 (부충재: 현 시점 완화 여지 없음) ↳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 궤적 명확화 후 정책금리 재조정 방침 •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엘니뇨발 식량 부족 겹침으로 광범위 인플레이션 확산 경보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급등 (부충재: 연간 평균 배럴당 \$90 전망) ↳ 식량·연료 중심 물가상승이 높은 투입비용을 통해 서비스 부문 가격까지 파급 ↳ 중앙은행 관계자: 문순 불규칙과 엘니뇨로 농업 수확량 직접 위협, 식량가격 추가 상승 우려 • 지정학·기후 불확실성 고조, 정책당국 명확한 신호 대기 ↳ 위원회: 호르무즈 봉쇄·엘니뇨·교역정책 등 복합 리스크 속 신중한 대응 필요성 강조 ↳ 중앙은행 관계자: 문순·식량·연료 가격 추이 명확화될 때까지 현 정책 유지 ↳ 인플레이 일반화·수요 급증의 실질 증거 확인 전까지 정책 인상 미루기 • 조기 긴축의 경제적 비용과 인플레이션 고착화 리스크, MPC 의 정책 선택 난제 ↳ 위원회: 정책 인상의 경제적 대가와 인플레이 확산 우려를 함께 검토 ↳ 중앙은행 총재: 현 인플레이는 공급측 충격 구조, 수요 억제 통화정책의 불필요성 언급 ↳ 성장-인플레이 역학 불투명 상황에서 추가 데이터 확보 전까지 현 정책 유보
EM 기타 뉴스 20 건 HIGH	• UAE, 이란 미사일 위협 후 금융거래 전면 중단 — 걸프만 긴장 재격화 ↳ UAE 는 어제 저녁 이란의 탄도미사일 2 발 발사를 감지한 후 이란과의 모든 금융·경제거래 즉시 중단을 선언 ↳ 미사일은 미국-이란 분쟁 종료 협상 관련 대립 와중에서 발사, 5 월 4 일 Fujairah 항구 공격 이후 처음 UAE 겨냥 ↳ UAE 주식시장 19 일 하락 마감, 카타르 지수는 1 년 이상 최저 수준 기록 — 미국의 협상 부재 명시 후 걸프만 심리 악화 • 러시아 루블, 우크라이나 에너지 공격으로 수입 증가하며 8 월 올해 최악 기록 ↳ 루블은 최근 인터뱅크 시장에서 달러당 85.44 루블 수준 기록(2025 년 9 월 이후 최악), 5 월 이후 누적 20% 약세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연료·전기장비·정유장비 수입이 6 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통화 약세 가중 ↳ 7 월 대형 수출업체의 외환 매각이 2022 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며 루블 지지 요인 약화 • 러시아, 7 월 PPI 여전히 높음·가구 물가 기대치는 하락

권역	요약
	↳ 7월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기 대비 +6.6%, 전월 대비 -2.5% ↳ 8월 가구 인플레이 기대치는 13.7%로 7월 14.7%에서 1.0 포인트 하락 — 인플레이 심리 완화 초기 신호 • 폴란드 투스크 정부, 중산층 소득세 인하·대기업 법인세 인상으로 세제 개편 ↳ 개인소득세 2단계 기준을 13만 즐로티로 상향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24%로 설정 — 약 350만 명의 납세자 혜택 예상 ↳ 매출 5천만 유로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19%에서 22%로 인상해 소득세 감액분 상쇄, 예산 중립성 유지 • 헝가리 Paks 원전, 도뉴 강 수위 회복으로 재가동 경로 확보 ↳ 주요 냉각수 공급처인 도뉴 강의 수위가 공학적 조치를 통해 필요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 원전 추가 가동 정지 회피 ↳ 6개 정지 터빈은 향후 일요일부터 재가동 시작 가능하며, 그 이후 일주일 내 목요일 또는 금요일까지 전력 공급 복구 전망 ↳ 헝가리 전력의 약 절반을 공급하는 Paks 원전이 현재 25% 용량에서만 운영 중 • 남아공 랜드, 예상 하회한 7월 물가 수치로 강세 전환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3% (전월 5.0%)로 5개월 만에 처음 하락, 시장 예상치 4.5% 하회 ↳ 식품 물가 약세, 지방공사 요금 인상을 둔화, 연료 가격 하락이 물가 개선 견인 ↳ 19일 종가 기준 달러당 16.15 랜드 수준으로 전일 대비 약 0.7% 강세 •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통화정책 목적의 5억 달러 특별 외환 경매 실시 ↳ 20일 특별 외환 경매 실시 • 필리핀 7월 국제수지 -15억 달러 적자로 전환 •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산업시설 공격이 산업에 중대 영향 없다고 주장 ↳ 정유소·대형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나, 산업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입장 ↳ 러시아 정부는 저장시설 복구에 국가 개입 필요성을 주장 중 • 북한 김여정, 우크라이나의 5만명 추가 파병 주장을 공식 부인 ↳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군 5만여 명 추가 파병을 공언한 후, 통치당 고위 관료인 김여정이 국영통신을 통해 '근거 없고 자작된 사건'이라 반박 • 우크라이나 해임된 국방부 장관 Fedorov, 젤렌스키에 대한 전시 선거 요구로 내부 도전 ↳ Fedorov는 러시아 침략 이후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내부 도전을 제기한 상태 ↳ 2019년 취임 시 35세의 우크라이나 최연소 장관이었으나, 개혁 추진으로 인기를 얻은 후 군부 고위직과의 충돌을 이유로 임기 6개월 만에 7월 해임
프론티어 뉴스 3건 HIGH	•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8.00%로 인상 — 3회 연속 인상 ↳ 전일(8월 19일) 0.25%p 인상(기준금리 8.00%) ↳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근원 인플레이션이 2.5% 목표를 여전히 상회한다는 판단 배경 ↳ 2027년 인플레이션 급락 예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 아이슬란드, 8월 29일 EU 가입협상 개시 여부 국민투표 — 찬반 여론 팽팽 ↳ 투표는 EU 가입 여부가 아니라 협상 개시 동의만 결정

권역	요약
	↳ 현재 여론조사상 찬반 의견이 거의 비등한 상황 ↳ 투표 통과 시에도 가입협상 개시만 확정될 뿐, 최종 가입까지는 여러 추가 단계 남음
중국 뉴스 1 건	•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 서울 도착, 한-중 정상회담 추진 신호 ↳ 전일 저녁 도착, 오늘 조현 외교부장관과 회담·내일 이 대통령과 면담 예정 ↳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기간 한-중 정상회담 개최 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외교 복귀 움직임에 맞춰 미-한 군사훈련이 축소된 배경
한국 뉴스 1 건	• 한국, 토요일 첫 북극 항로 상용 운항 시작 — 러시아 협력으로 서방 우려 초래 ↳ 스에즈 운하 항로 대비 소요 시간 35% 이상 단축 가능 ↳ 중국 등 극지항로 상용화를 진행 중인 국가들과 함께 한국도 참여 ↳ 러시아 허가 필수인 가운데 서방 외교 진영의 반발
브라질 뉴스 2 건	• 라틴아메리카 자산 어제 반등 — 달러 약세·글로벌 채권수익률 하락 견인 ↳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 +1.9%, 지역 통화지수 +0.5%, 이달 최고 낙폭 회복 ↳ 미국 달러 -0.7% 약세, 30년물 국채수익률 약 10bp 하락으로 신흥시장 통화 압력 완화 ↳ 브라질 주식 11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반등 신호
남미 기타 뉴스 1 건	• 아르헨티나 7월 무역수지 흑자 기록 예상, 2026년 연간 \$200억 초과 전망 ↳ 로이터 설문조사(애널리스트 10명) 중간값: 7월 무역수지 흑자 \$18.5억 ↳ 농업·석유 수출과 높은 국제 상품가격이 주요 견인 요인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